

3층 랍비

3층에서 랍비가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미친 사람이 칼을 들고 뛰어들며 말했습니다.

“너는 하느님의 사람이다. 3층에서 뛰어 내려 봐라. 하느님이 살아계시고 너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라.”

랍비는 뛰어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느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느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랍비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잠깐!”

“왜?”

“3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리는 것이 무슨 기적이냐? 1층에서 3층으로 뛰어올라야 기적이지, 칼 들고 여기 기다리고 있어. 내가 창문으로 뛰어오를 테니.”

미친 사람이 말했습니다.

“빨리 뛰어 올라 와야 해!”

미친 사람은 칼을 들이대고 창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올라올 때까지 모르고 그대로 있었습니다.